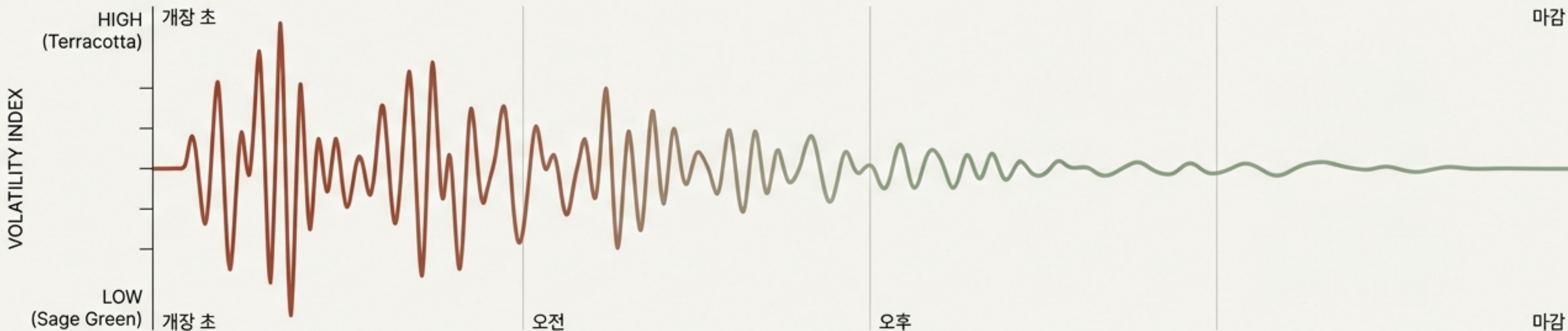


2026.06.10 | [KOSPI] 8,096.93 (0.00%) | [NASDAQ] 1%↓ | [US 10Y] 4.562% (+5bp) | [WTI] \$88.70 (+\$2.62) | [GOLD] \$500 (+\$18)

변동성 장세의 항해: 지뢰밭 증시와 자본의 대이동

2026년 6월 10일 글로벌 금융시장 브리핑 및 교차 자산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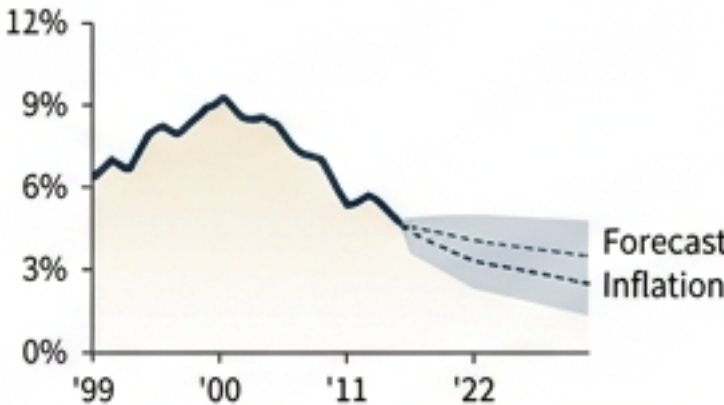


REPORT TYPE: 장전 브리핑 | TARGET: 기관 투자자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

핵심 관전 포인트 (Executive Dashboar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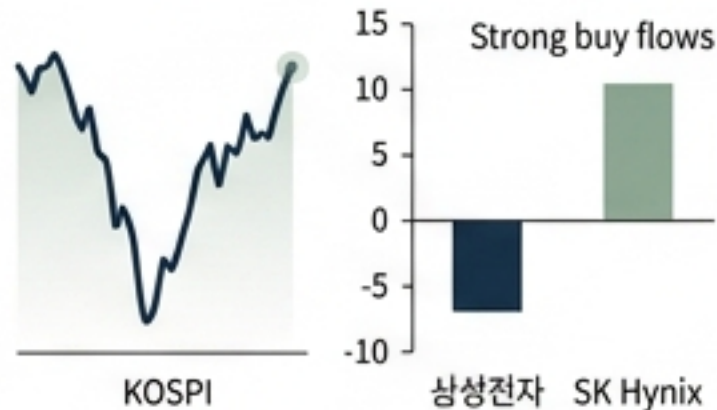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촉매: 美 CPI, 금리 경로의 분수령

오늘 밤 발표될 미국 CPI 결과에 따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됩니다. 인플레이션 둔화 시 위험자산 강세가 예상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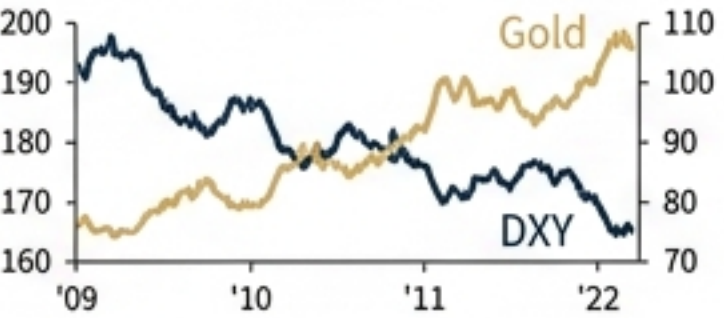
국내 증시: V자 반등과 반도체 재평가

KOSPI가 -8% 폭락 후 하루 만에 3~6% 급반등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었습니다.



교차 자산 (FICC): 달러 약세 속 안전자산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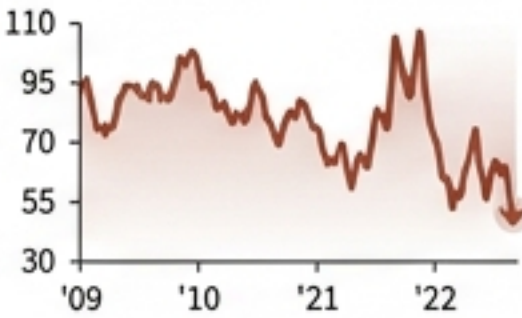
지정학적 긴장 완화 뉴스에도 불구하고, 금(Gold) 가격 상승과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원/달러 매도 및 금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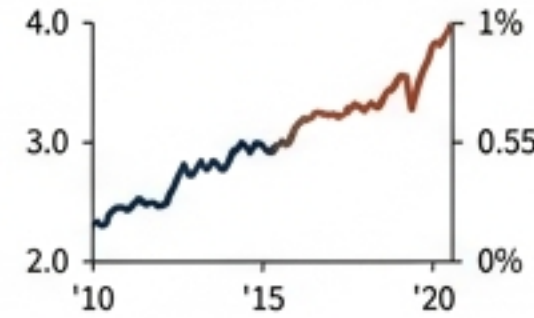
전략	전략
원/달러 매도	금 매수
금 매수	금 매수

글로벌 리스크: 유동성 블랙홀 경계령

스페이스X 상장(D-3)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와 일본 금리 1% 시대 임박이 글로벌 증시의 하방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.



글로벌 총이
D-3



KOSPI의 해부학: -8% 폭락 후의 V자 반등



핵심 반등 엔진 (Top Market Cap Drivers)

1

삼성전자

322,000원

시총 1882.5조 ↗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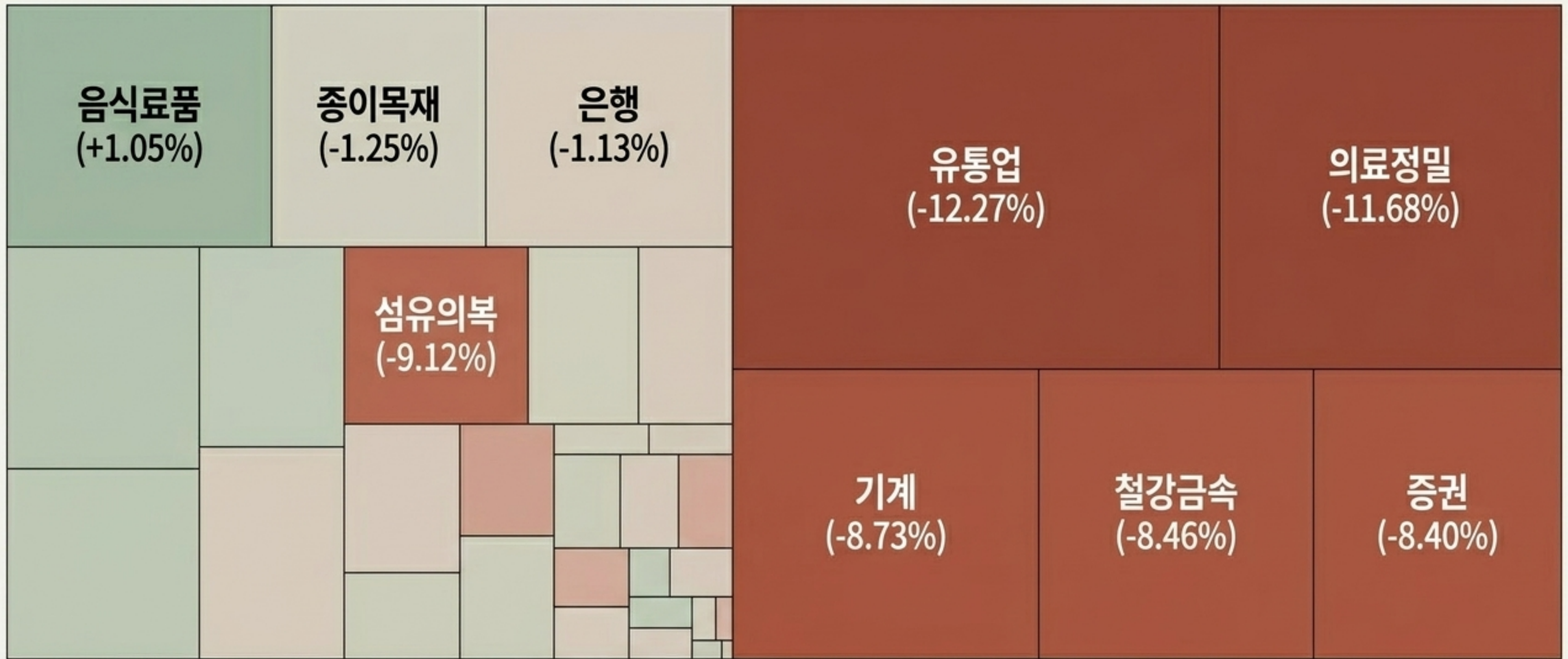
SK하이닉스

2,215,000원

시총 1578.6조 ↗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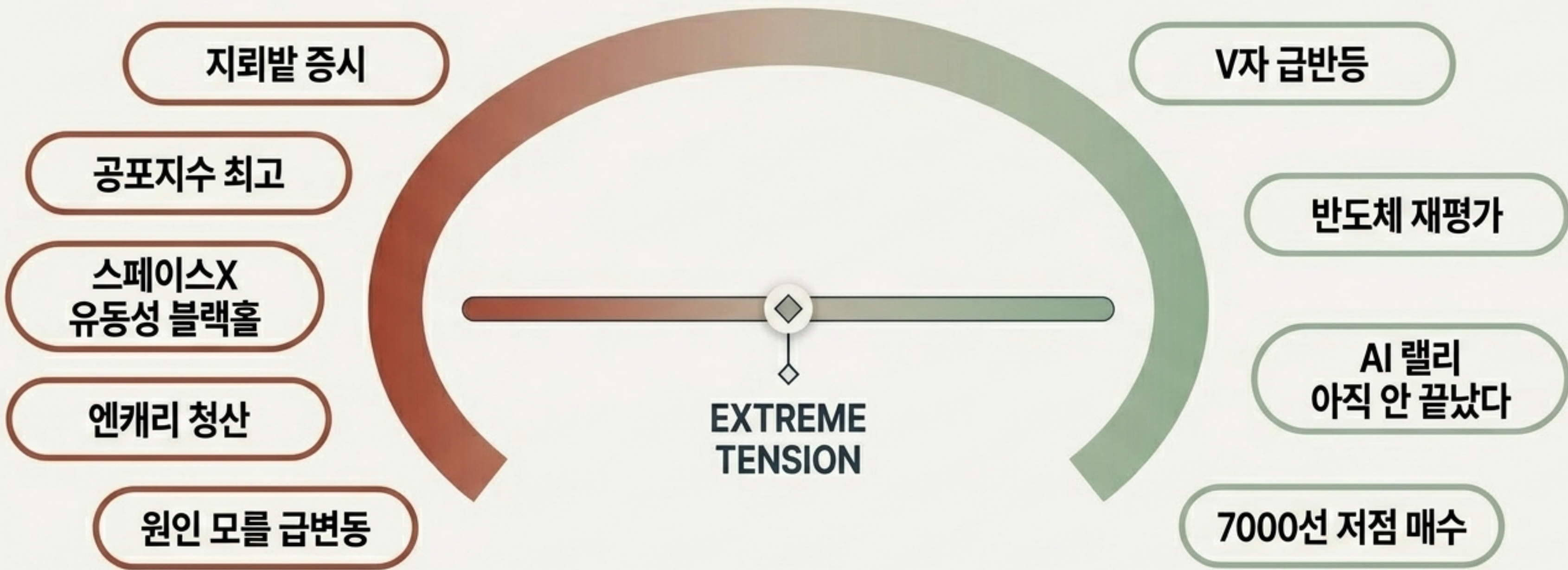
반도체 기업 재평가 지수 8000선
회복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.

섹터 모멘텀 히트맵: 방어주 vs 소비재의 극명한 대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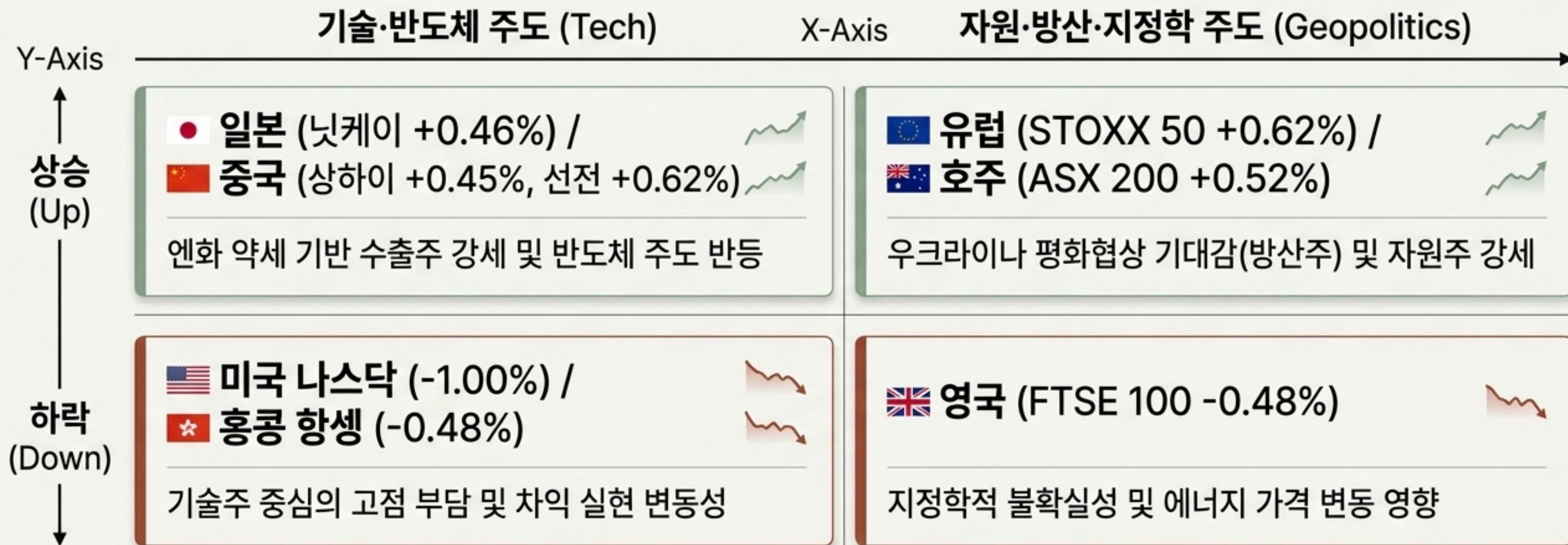
지수 횡보 속에서도 섹터 간 양극화 심화. 단기 변동성 장세에서는 음식료 등 방어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요구됨.

시장 심리 지진계: 팽팽하게 맞서는 공포와 기대



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양분됨. 대형 IPO로 인한 수급 불안(Fear)과 AI/반도체 실적 기대감(Greed)이 충돌하며 일일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음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매트릭스 (Divergence Map)



아시아 증시는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 중이나, 미국 나스닥은 기술주 변동성 확대로 1% 하락하며 글로벌 자본의 로테이션 흐름이 포착됨.

미국 증시 다이내믹스: 기술주 조정과 섹터 로테이션



S&P 500
7,405.73 (0.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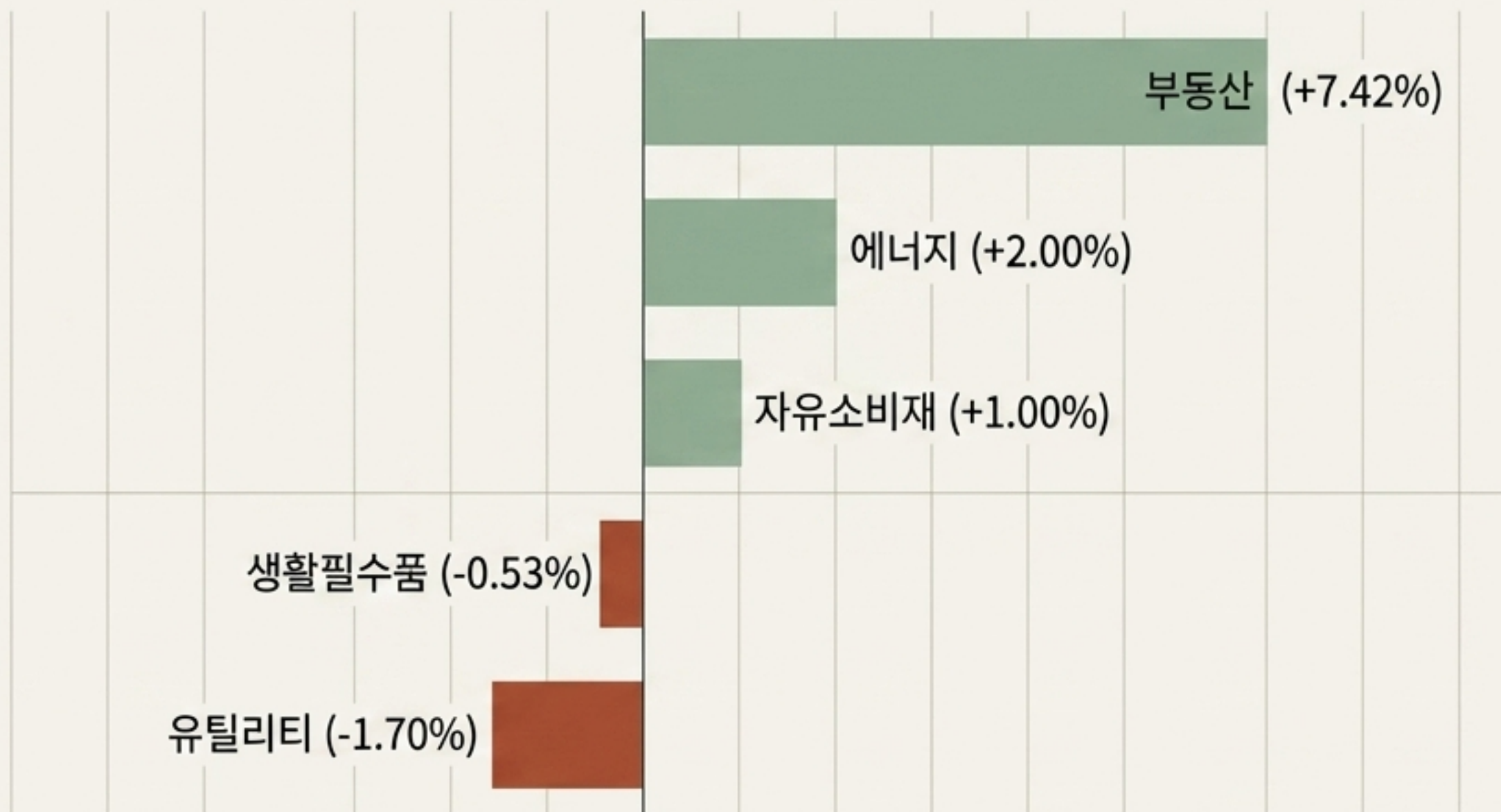


DOW JONES
50,786.01 (0.00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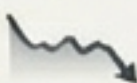
NASDAQ
-1.00%

1-DAY US SECTOR PERFORMANCE



미 국채 금리 강세(안정)에도 불구하고, 원인 모를 급변동과 위험 회피 심리가 나스닥(기술주)을 압박.
반면 부동산과 에너지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며 방어적 포지셔닝이 관찰됨.

FICC 자산 로테이션 진단: 대피소와 기회의 공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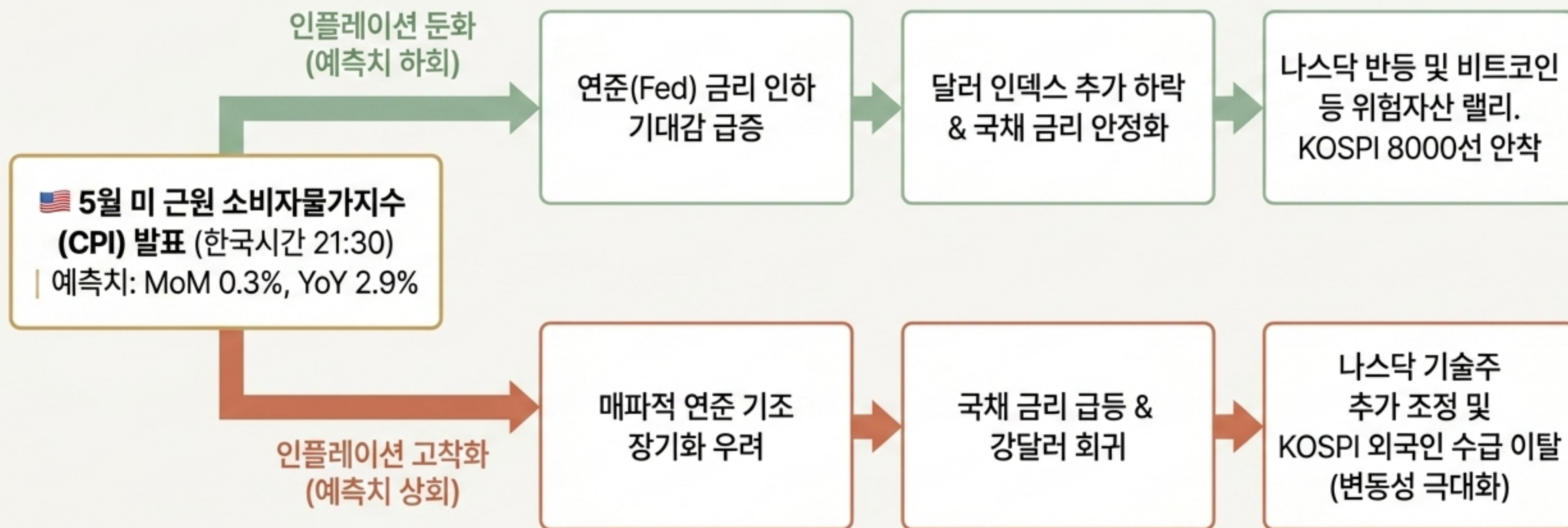
자산군	일간 변동	시장 시그널
금 (XAU)	\$500 (+\$18) 	CPI 경계감 및 위험 회피에 따른 강력한 안전자산 선호
미 국채 10Y	4.562% (+5bp) 	FOMC 매파 기조 반영 및 증시 회복에 대한 헤지
비트코인 (BTC)	\$500 (+\$1,240) 	ETF 순유입 지속, 나스닥 하락과 디커플링된 대체 위험자산 수요
WTI 원유	\$88.70 (+\$2.62) 	중동 긴장 완화 뉴스에도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하방 경직성 확보
원/달러 환율 달러인덱스	₩1,445.00 (-5.30)  0.2 (-0.32) 	유로화 강세(ECB 금리 재평가)로 인한 달러 약세, 원화 소폭 반등

자본 흐름의 해부: '지뢰밭 장세' 속 자산의 재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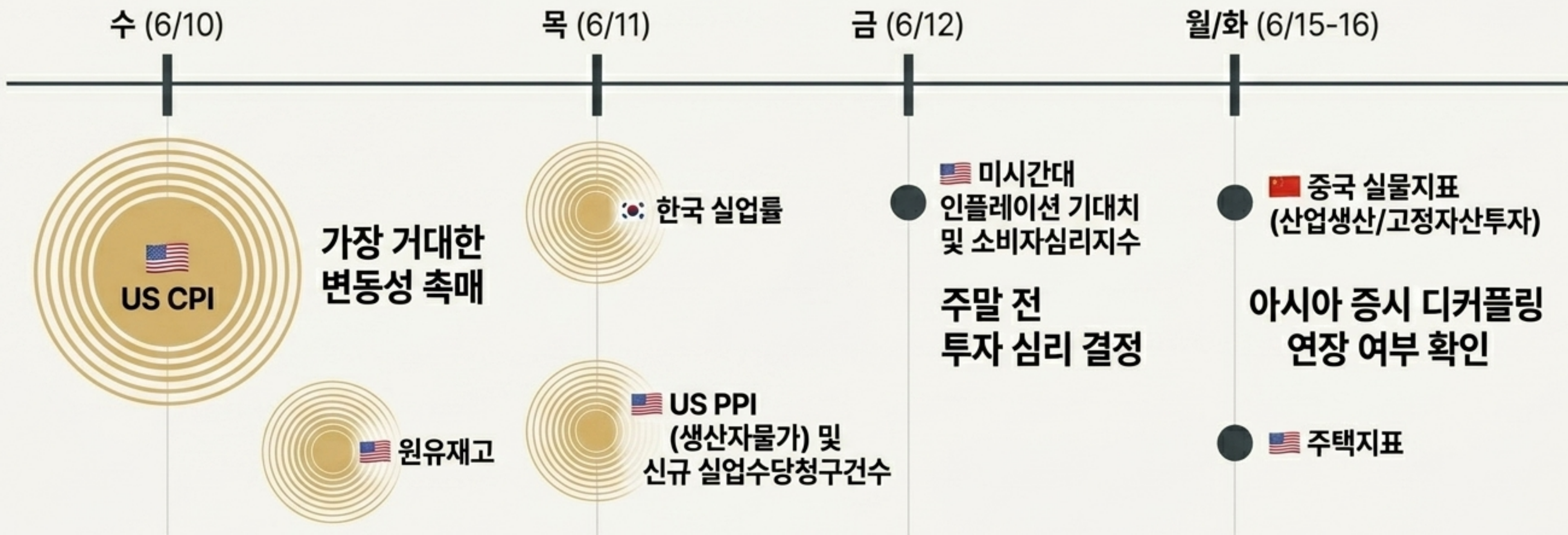


시장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재편(Rotation)되고 있습니다. 광범위한 지수 플레이보다는 확실한 피난처(금)와 압도적 모멘텀(반도체/BTC)으로 자본이 양극화되는 현상입니다.

매크로 촉매 1순위: 5월 미국 CPI 시나리오 트리



주간 촉매 레이더 (Catalyst Radar): 6.10 ~ 6.16



핵심 이벤트들이 이번 주 중반(수~목)에 밀집.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방향성이 확고해질 전망.

전술적 포지셔닝: 변동성 장세를 돌파하는 3가지 전략



국내 주식 (Equity) - 선별적 타격

**반도체 및 방어주 중심
비중 확대**

지수 베팅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확인된
확인된 AI/반도체 대형주(삼성전자,
하이닉스)와 단기 피난처 역할을 하는
음식료 등 방어주로 포트폴리오 압축.



통화 및 원자재 (FICC) - 안전판 구축

원/달러 매도 & 금(Gold) 매수

유로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 달러 약세
지속 전망. CPI 불확실성 헷지를
위해 포트폴리오 내
금(Gold) 비중 유지 및 확대.



매크로 리스크(Macro) - 블랙홀 경계

**유동성 경색 대비
현금 비중 조절**

임박한 스페이스X 상장발 블랙홀 효과와
일본 금리 1% 진입(엔캐리 청산)
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,
레버리지 축소 권고.